

## 도내 외국인 유학생 지평선 축제서 농경문화 매력 빠지다

전북대·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유학생 240여 명 김제지평선축제 참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유학생 240여 명이 지난 6일 김제에서 열린 '김제지평선축제'에 참가해 전통농경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번 지평선축제는 지역의 관광객이 단순히 공연을 보고 즐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전통농경문화의 진수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개설된 '쌍룡놀이'와 풍년기원 '입식줄다리기', '쌍룡햇불퍼레이드' 등을 마련해 유학생들이 흥미로운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에 참여해봄으로써 한국의 전통 풍습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유학생 참여 행사는 지난해 6월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김제시와의 업무협약을 통



해 진행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농경문화 전파 및 농생명 분야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상호 교류 및 우호증진을 지속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도내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농경문화를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하여 보다 쉽게 한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지역 전통문화가 유학생들을 통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지방 대학 간 연계협력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북미 호남향우회, 군산지역 소년소녀가장 위해 기금 전달

서북미 호남향우회 대표단(회장 이종행)이 지난 8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소년소녀 가장돕기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소년소녀가장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타코마에서 개최된 '제22회 서북미 호남향우회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서북미 호남향우회원들이 미국 타코마시의 자매도시인 군산지역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종행 회장은 "군산시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기금 후원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임준 군산시장은 "서북미 호남향우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며 "먼 타국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신 이종행 회장을 비롯한 서북미 호남향우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진안읍, 장애인 행복의 보금자리 선물

진안군 진안읍 중증장애인 가구에 행복의 보금자리(63㎡)가 마련돼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해 준 감동스토리의 주인공은 익명의 후원자와 김길문(64, 진안읍 평촌마을, 재능기부)씨로 수년에 걸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형편이 열악한 가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어주고 있다.

또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보금자리로 진안에서만 3동을 신축했으며 해마다 1동씩 기부할 예정이다.

올해의 수혜자는 청인순(60, 진안읍 어은마을)씨로 지난 해 암수술을 받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그 동안 낡은 주택에서 어렵게 생활해 왔다.

청인순씨는 "평생의 소원이 새집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성당(박병준 신부)과 마을 주민 30여명이 최근 한마음으로 축성식과 미사에 함께하여 청인순씨의 기쁨을 함께하고 보금자리 입주를 축하해 줬다.

행복의 보금자리사업에 수년째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는 김길문씨는 "농사와 재능기부를 함께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수혜가구의 웃음을 보는 순간 보람이 넘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순창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 직업체험 실시

순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9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꿈드림'을 광주 플레이커피 교육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체험은 바리스타와 파티셰 선생님들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후 커피와 음료, 케이크를 만드는 순으로 진행했다.

체험한 음료와 디저트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장류축제 실물경제체험 '꿈차'를 직접 운영해 판매할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일자리센터는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재학생 및 도내 청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최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진로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젊은 구글러로 유명한 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가 초청돼 '창의적인 인재와 대학생의 미래설계-기회는 어디에서 불어오는가?'를 주제로 특강이 펼쳐졌다.

김태원 상무는 객석과 소통하면서 경쟁에 집중된 인재와 진짜가 되려는 인재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청춘들에게 구체적인 취업 설계 기회를 제공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정확한 직무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취업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콘서트를 주관한 대학일자리센터장 최재규 교수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지친 청춘들에게 터닝 포인트 시간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에 관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인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고창경찰서, 내실있는 피해자보호활동 적극 추진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 지원업무를 펼치고 있다.

피해자의 욕구에 맞도록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상담경찰관 김경아 순경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지역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고창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익산경찰서, 범죄 사각지대 없는 전국체전만들기 주력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10.12~10.18)를 범죄 없고 안전한 체전이 되도록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개 폐회식 장소인 익산종합경기장(공설운동장)의 다중운집에 따른 차량털이 등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민간 드론동호회(회장 이동민)와 협력해 주차장 등 경기장 주변의 안전과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기존 순찰 활동과 더불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범죄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종합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에서 전국체전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